

혈뇨 환자에서 방광경검사의 유용성에 관한 고찰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신장내과학교실, 비뇨기과학교실*

이한민, 신규태, 김상돈, 지식배, 마경애, 김승정, 김홍수, 김도현, 안현수*, 정도영*, 김영수*

혈뇨는 방광암의 흔한 증상이다. 건강검진이 보편화되면서, 적지 않은 사람에서 혈뇨가 발견되는데, 어떤 환자에서 방광경검사를 시행할 것인가는 잘 확립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많고, 아직까지도 논의의 대상이다. 특히 현미경적 혈뇨에 대해서는 저자마다 의견이 더욱 다르다. 동양의 방광암 발생 빈도는 서양과 다르므로, 동양인에 있어서 혈뇨의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 원칙은 동양인에서의 연구 결과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현미경적 혈뇨 및 육안적 혈뇨의 원인을 찾기 위해 방광경검사를 시행한 369명 환자에 대한 후향적 연구 결과이다. 방광경검사 결과 육안적 혈뇨 환자 239명중 54명이 방광암으로 밝혀진데 반해 (22.6%), 현미경적 혈뇨 환자는 130명중 3명만이 방광암 환자로 밝혀졌다(2.3%). 방광암 환자의 79%가 남성이었고, 각 연령에서의 방광암 발생빈도는 아래 표와 같다.

나이(세)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
육안적 혈뇨 * (방광경검사 시행 환자수, 239명)	0 (4)	5.9 (17)	10 (50)	16.2 (37)	11.4 (44)	34.1 (45)	52 (42)
현미경적 혈뇨 * (방광경검사 시행 환자수, 130명)	0 (1)	0 (7)	0 (26)	0 (43)	0 (26)	4.8 (21)	33 (6)

요세포학적검사 결과는 방광경검사 및 조직생검으로 확진된 환자의 50%에서 양성 결과를 보였고, 복부 전산화단층촬영은 초음파검사나 경정맥 신우조영술보다 진단 양성율이 월등했다. 디스틱검사에 의한 단백뇨의 확인은 방광암의 진단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무증상의 현미경적 혈뇨를 보이는 환자중 50-60세미만의 환자에 대한 방광경 검사는 선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육안적 혈뇨를 보일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원인 규명을 위한 적극적인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혈뇨를 동반한 소아 특발성 고칼슘뇨증에 관한 장기 추적 관찰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이영석 · 신원혜 · 고철우 · 구자훈

목적 : 한국 소아에서 전신적 질환 없이 육안적 혹은 현미경적 혈뇨를 보이는 환자중에서 특발성 고칼슘뇨증의 빈도, 이의 임상적인 의의 및 장기적인 예후를 알아보고자 본 조사를 시행하였다.

방법 : 대상환자는 전신 질환 없이 육안적 혹은 현미경적 혈뇨를 주소로 경북대학병원 소아과에 입원한 150례로 하였으며 고칼슘뇨증은 통상적인 식사를 취하는 동안 24시간 뇨칼슘배설이 4mg/kg 이상인 경우로 하였고 입원후 경구 칼슘 부하검사를 시행하여 흡수형 혹은 신성으로 구분하였다. 모든 환자에서 입원시 및 추적관찰 기간중 1년 간격으로 초음파를 시행하여 신결석 유무를 확인하였고 또한 Dipstick을 이용하여 혈뇨 소실 여부를 추적 관찰하였다.

결과 : 대상 환자 150예중 44예 (29%)가 특발성 고칼슘뇨증으로 진단되었으며 정상 칼슘 배설군에 비해 여아보다 남아 (9:35)가 많았고 혈뇨 양상은 육안적 혈뇨가 현미경적 혈뇨 (37:7)보다 많았다 ($p < 0.05$). 경구 칼슘 부하검사로서는 신성이 29예, 흡수형이 8예였으며 7예에서는 형을 결정할 수 없었다. 세 형간의 24시간 뇨중 칼슘배설량 및 각종 검사상 차이점은 발견 할 수 없었다. 3예에서 시행한 신조직검사는 모두 정상 소견이었다. 고칼슘뇨증 환자에서의 신결석의 발생은 4예 (입원시 2예 및 추적 관찰 기간 1~2년에 2예)로서 10%의 빈도를 보였으며 신결석이 발생한 군은 발생하지 않은 군에 비하여 연령이 낮았으며 (3.7 ± 2.7 vs 7.2 ± 2.9 yr) 여아가 남아보다 많았다 (3:1 vs 6:34) ($p < 0.05$). 24시간 뇨칼슘배설량 및 칼슘 부하검사에 의한 유형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혈뇨의 소실은 추적 관찰 기간 1~2, 2~4, 4~6 및 6~8년에 각각 56, 30, 66 및 75%의 환자에서 혈뇨가 소실되었다.

결론 : 특발성 고칼슘뇨증은 한국 소아의 혈뇨의 원인으로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을 알 수 있었으며 그러므로 반복성 혹은 육안적 혈뇨 환자에 대해서는 뇨중 칼슘 배설량 측정이 필수적인 검사로 생각된다. 또한 신장 결석 발생의 조기 진단을 위하여 정기적인 신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나 경구 칼슘 부하검사에 의한 신성과 흡수형의 구분은 임상적으로 큰 의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관해서는 추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